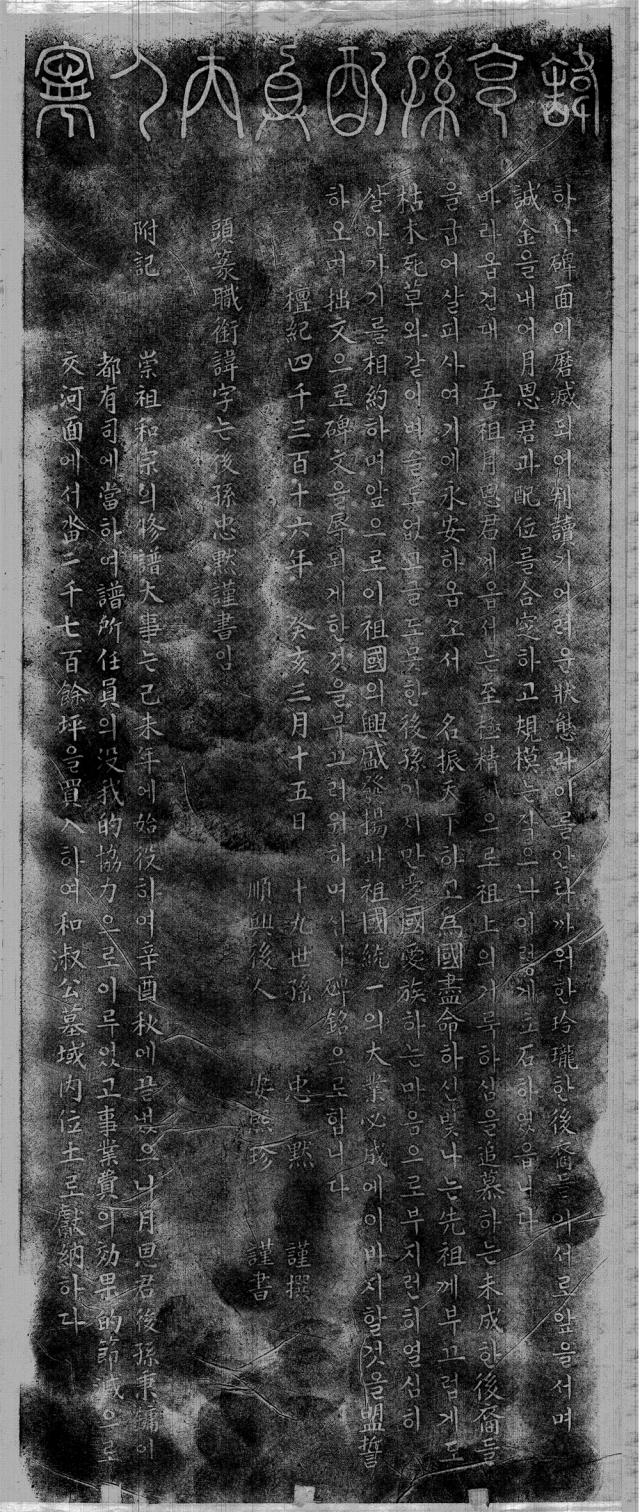

諱享孫配貞夫人寧

하나碑面이磨滅되어判讀가어려운狀態라이를안타까워한玲瓏한後裔들이서로앞을서며誠金을내어月恩君과配位를合窆하고規模는작으나이렇게立石하였읍니다

바라옵건대吾祖月恩君께옵서는至極精誠으로祖上의거룩하심을追慕하는未成한後裔들을굽어살피사여기에永安하옵소서 名振天下하고爲國盡命하신빛나는先祖께부끄럽게도枯木死草와같이벼슬도없고글도못한後孫이지만愛國愛族하는마음으로부지런히열심히살아가기를相約하며앞으로이祖國의興盛發揚과祖國統一의大業必成에이바지할것을盟誓하오며拙文으로碑文을辱되게한것을부끄러워하며서이碑銘으로합니다

檀紀四千三百十六年 癸亥三月十五日　十九世孫 忠黙 謹撰

順興後人 安熙珍 謹書

頭篆職銜諱字는後孫忠黙謹書임

附記

崇祖和宗의修譜大事는己未年에始役하여辛酉秋에끝냈으나月恩君後孫東鏞이都有司에當하여譜所任員의沒我的協力으로이루었고事業費의効果的節减으로交河面에서沓二千七百餘坪을買入하여和淑公墓域內位土로獻納하다